

120국 참여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미국 주도 한국 등 공동주최 블링컨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 반대" 美, 20개국 동참 투명성 제고 선포 윤 대통령 경제 성장 부문 세션 주제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이 행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총회는 29일 개최된다.

지난 1회 행사에는 110여개국이 참여했고, 이번엔 120여개국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직접적 반발을 샀던 대만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전 행사 성격인 이날 회의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주제별 토론을 맡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 부패와 전쟁, 노동조합 강화,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갔다.

애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전투지 방문 일

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이 지지될 거를 확인하며 이를 제외한 휴전 제안은 러시아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는 휴전을 언급하는데 매우 주의 깊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에게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정착 방안을 내놓은 것을 사실상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여성의 지위 세션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맞서 여성들이 투쟁 중이고, 이란에서는 용감한 여성들이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전세계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패는 독재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며 "부패로 인해 푸틴과 러시아의 올라가르히(신중재)들이 국부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규탄했다.

그는 "내년부터 부패한 범죄자들이 익명에 숨어

재산을 은닉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회사 실소유주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다. 실소유주 데이터베이스는 더러운 자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관련, "부패한 범죄자들은 수십년간 익명에 숨어 그들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2015~2020년 최소한 23억 달러가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으로 돈세탁 됐으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투명성 제고 강화 방안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여개국이 참여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의 파트너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싸우며 법치를 수호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행사인 둘째 날 총회 개막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 개최국 정상들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주관한다.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연합뉴스



산사태에 짐 챙겨 떠나는 에라도르 주민들 산사태 피해를 본 에라도르 남부 침보라스주 알라우시의 주민들이 28일(현지시간) 집을 챙겨 집을 떠나고 있다. 지난 26일 이 지역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여러 채가 파문혀 최소 8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구조대원들은 아직 실종상태인 71명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미국 경유 중미 순방

9박 10일 뉴욕·LA 방문

"미 하원의장과 회동 예정"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부터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민주의 파트너, 공영(共榮)의 여행'이라는 테마를 내걸고 이날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는 계기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다.

이번 순방은 차이 총통의 임기 내 8번째 순방으로 중화항공 특별기편으로 정오께 대만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에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이 총통은 뉴욕에서 교민 만찬을

가진 뒤 30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과테말라와 벨리즈에서의 순방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길에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경유할 예정이다.

대만언론은 차이 총통이 다음 달 5일 LA 방문 때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하고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제특위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외교 관계지는 차이 총통의 순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정'과 '실용'으로 관례를 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이 총통이 이미 이번 순방길에 '민주의 심화', '공영 발전'에 대한 2가지 목표의 달성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권도형 "도피중 세계 곳곳서 VIP 대접"

몬테네그로 경찰에 진술

"압수 폰·노트북에 정보 상당량"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도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이날 포드 고리치의 내무부 청사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권도형과 그의 일행은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하더라"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고 우리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아지치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권도형 대표 일행이 몬테네그로에 들어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춰 불법 입국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몬

테네그로 입국 전에 명시되지 않은 이웃 나라에서 일정 시간을 머물렀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사법당국이 앞서 지난 달 권도형 대표 일행의 행방을 세르비아에서 수소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지치 장관은 또한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기 전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권 대표 일행이 자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조사를 통해 위조된 벨기에 여권,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한국 여권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권 대표 일행으로부터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도 압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아지치 장관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답변하길 거부한 채 "매우 흥미로운 의미있는 분량의 정보를 발견했다"고만 언급했다. /연합뉴스

U-20 월드컵 유치 위기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치·스포츠 혼동말아야"

오는 5월부터 열리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반이스라엘 여론으로 유치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나서 국민들을 향해 정치와 스포츠를 구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29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강력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우리의 외교 정책과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신한다"라며 "스포츠와 정치 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 회장이자 공기업부 장관인 에릭 토히르 회장이 FIFA와 이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났다고 밝혔다.

다만 에릭 회장이 FIFA와 무슨 이야기를 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에릭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U-20 월드컵 개최권을 따냈지만 이후 이스라엘이 유럽 예선을 뚫고 이번 대회 본선에 진출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美 테네시주 초교 총기난사 6명 사망 28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초등학교 커버넌트스쿨 건물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에서 한 시민이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천사상과 깃발을 놓고 있다. 전날 오전 이 학교 출신의 성전환자 여성 오드리 헤일(28)이 모교에서 총을 마구 쏘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을 숨지게 했다. 헤일은 이후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

돈돈돈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